

찬 북서풍 따뜻한 서해 지나며 눈폭탄 돌변

광주·전남 기습폭설 원인은

10월 광주에는 10c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는 등 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에 내린 눈은 14.9cm로, 2010년 12월 30일(21.3cm) 이후 1일 기준 가장 많은 적설량이다.

호남과 충청을 뒤덮은 이번 서해안 대설은 이 일대의 전형적인 강설 특징이 모처럼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해안 일대는 겨울철이면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온도차, 해빙자로 눈구름이 형성돼 한랭파에 많은 눈을 뿌리는 패턴을 보인다. 이번에도 지난 8일부터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북서쪽으로부터 한기가 내려왔으며, 이 찬공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해빙자 때문에 눈구름이 급속하게 형성됐다.

다만, 같은 서해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광주 14.9cm로 7년만에 최고
곳곳 낙상·교통사고 잇따라
영암서 주유소 충돌 1명 사망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 경유 호남·충청 지역보다는
적절함이 적은 게 일반적이다.

이제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복서기류가 바
다를 거쳐 호남이나 충청 쪽으로 흐르는 현
상 때문이다. 지형상 이 기류가 경기만 쪽
으로 꺾여 들어가기 못해 같은 바람이 불어
도 서해안 대설과는 달리 눈 그림자가 발
달하기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모처럼 쏟아진 대설로 광주·전남
에서는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눈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10일 오전 9시55분께 영암군 삼호읍에
서는 승용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소
동백을 받아 1명이 사망했다. 10일 새벽 4

지 40분께 호남고속도로 순천시 승주읍에서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아 2명이 다쳤고, 같은 시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하루 종일 사고가 잦은 사고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오후 6시 40분께 화순군 이양면 이양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아

반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뒤따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등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밤 9시 25분
께 광주 광산구 비야동 비야 육교 인근 장
성 방면 도로에서는 택시 등 6대가 연속으
로 부딪히는 사고 등이 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제설 대책 긴급회의
결빙 도로·비닐하우스 점검

광주시는 10일 오후 박병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제설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9일부터 주요도로, 경사로, 교량, 결빙지역을 중심으로 163개 노선 406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설주의보 발효가 2일째 지속

법에 따라 시설등급, 복구, 교통 등 관련
실과 13곳 및 5개 자치구 재난부서 담당과
장을 긴급 집합해 비닐하우스 및 축사 관
리, 노후주택 및 고립마을에 대한 대책, 상
수도 동과 등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았다.

윤장현 광주지상도 대설로 인한 시민불
편 최소화를 위해 10일 새벽부터 전 직원
내집 앞 눈치우기를 주도하고, 화순 너머
개 광주·전남도 경계 지점까지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오공록기자 kroh@



광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 출범...위원 22명 위촉

상고권 행사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광주지방법경찰청(김지장 양부남)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꾸렸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8일 광주지검 회회의실에서 상고심의위원 위촉식을 갖고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변호사 11명, 대학교수 11명 등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찰 출신위원은 2명으로 제한했다.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검찰은 진실규명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재판을 시정하는 것 못지 않게 형식적인 상고로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1심, 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및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의위원회 출범이 국민의 인권보장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을 겨울 한랭질환 223명
전남 등 7명 저체온 사망

이번 겨울 들어 저체온증으로 지금까지 전남 등에서 7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주 초 북극 인근의 찬 공기가 또 다시 기습적으로 남진하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7일까지 한랭질환 환자가 223명 발생해 이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 소망 담은 캘리그라피 1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캘리그라피 새해 다짐 써주기 행사에서 캘리그라피 강사들이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새해 소망을 써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00kg 무게 마대자루 깔려
미곡처리장에서 60대 숨져

10일 오후 1시 30분께 담양군 수북면 소재 한 미곡처리장에서 화물차 기사 A(68)씨가 버 800여kg이 담긴 마대자루에 깔렸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장성군에서 25t 트럭에 버가 담긴 마대자루를 싣고 담양 미곡처리장으로 이동, 남품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대자루가 터진 것을 발견한 A씨가 바닥에 포대를 깔던 중 다른 마대자루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청은 9일 읍주단속에 붙은하고 단속의경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무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 2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온고가 앞도로에서 자신의 쏜렌토 승용차로 정모(22) 수경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

고 있다.

당시 읍주단속을 하던 정 수경은 운전석 창문을 통해 김씨에게 측정기를 들이대던 중 갑자기 출발한 김씨의 차량에 오른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자신이 저지르는 서구 농성동 골목길로 차를 몰아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100여

대를 분석한 끝에 김씨 차량의 변조한 끝 두자리를 식별했으며, 전국의 동일 차종 중에서 끝 두자리가 같은 260대의 소유자를 모두 확인해 김씨를 겨냥했다.

김씨는 경찰에 “직장 동료들과 소주 반 병을 마셨는데 음주측정기에서 소리가 나자 두려워 도망갔다. 의경이 다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 납품 도와주고 뒷돈
사이비기자 징역 3년 선고

학교 물품 계약을 도와주고 납품업자로부터 빚돈을 받은 사이비기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종민 판사)은 “변호사위법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기자 A(51)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청 공무원

물품구매 사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할 우려가 커 있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지역 국·공립학교에 특정업체 요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금의 17~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사채 갚으려고...” 400만원 횡령한 공기업 간부 경찰서행

 ○나주 역전도시
소해 한 공기업의 간부
가 자신의 사제 빚을
갚기 위해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서행.

○10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KCA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 A씨를 회
사공금을 사적으로 가로챌 혐의(횡령)
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A씨는 지난해 9
월 경리직원에게 출장비 9만원을 인출
한다고 해놓고 400만원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전파진흥원 감사
팀에서 A씨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사채
를 갚는 데 공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하고 지난달 A씨를 대법원형 조지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구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

